

사회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아들이 내 아들이아”

천안함 함미 인양 지켜본 전남출신 실종자 가족



15일 천안함 함미 내부에서 발견된 고 이상준 하사의 시신이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운구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스

실종된 천안함 승선 장병들은 결국 차디찬 주검이 되어 귀환했다. 커다란 태극기에 덮인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실종장병 가족들은 끝내 유족이 되고 말았다. 전남지역 출신 실종 승조원 4명도 모두 시신으로 돌아왔다.

15일 백령도 해역에서는 48명의 실종장병 가족과 지인들이 침몰한 지 20일 만에 인양된 천안함 함미에 대한 군담국의 수색상황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같은 시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시신이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이라고 심경을 털어냈지만, 막상 시신을 보자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강 중사는 다음달 9일 10년간 사귀어온 연인과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날 시신이 발견된 순천 출신 이상민(22) 병장의 고교 3학년 시절 담임교사 김형민(43)씨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흥 출신 정종용(33) 중사의 아버지 정해균(63)씨는 부인과 함께 차갑게 변한 아들의 시신을 보고선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전남지역 승조원 외에도 타 지역 출신 실종자 가족들도 이날 애절한 하루를 보냈다. 여친과 통화하던 중 전화가 끊긴 손수민 하사의 여친 진구는 “손 하사와 전화로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끊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 하사가 늘 그랬듯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강준 중사 부모 “내달 9일 결혼식인데...” “한가닥 기적 바랐지만...” 하염없는 눈물

함대 사령부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TV를 통해 수색상황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오열했다.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아들을 보는 부모는 한참을 울부짖었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본 실종 장병의 지인들과 시민들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흥 출신 강 준(30) 중사의 부모는 이날 사위와 함께 2함대 사령부에서 아들의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직후 그만 넋을 잃었다.

이 병장의 부모는 2함대 사령부에서 고인이 왜 돌아온 장남을 맞이해야 했다. 이 병장의 친구들은 그를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친구로 기억했다. 순천제일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휴학한 뒤 입대한 이 병장은 전역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구례 출신 문규석(37) 상사의 부인 한정미(37)씨를 비롯한 유족들도 태극기에 둘러싸인 시신을 보고 목놓아 울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아버지인 문 상사는 지난 1일 고(故) 김태석 상사와 함께 상사로 승진했다.

최근 스무 번째 생일 맞은 나현민 일병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나 일병은 지난 11일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았다.

나 일병의 아버지 나재봉씨는 이날 부대 내 식당에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역국 식단을 함께 아들의 생일을 알렸다.

나씨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 다시 시험공부를 해 수학을 전공, 교수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참담하다. 희생자 모두가 ‘전사자’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친인척 이외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숙소 밖으로의 외출도 삼간 채 TV를 통해 초조히 수색작업을 지켜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변압기 옮기다 감전사

15일 오후 4시께 여주시 화정면 월호리 자봉도에서 변압기를 옮기던 최모(34)씨가 감전돼 숨졌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는 작업용 변압기의 전원을 끄지 않고 옮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숨졌다.

/동부채널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자격증도 없는 교육청 간부 딸 기간제 교사 채용하려다 망신

광주시교육청 최종 면접까지 합격후 탈락

광주시교육청이 보건의료 기간제 교사 결원채움 과정에서 단독응모한 자격미달의 교육청 현직 간부 자녀를 면접시험까지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의료 순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청 간부 A씨의 자녀 B씨(25·여)를 합격자로

내정했다. 당시 채용에는 B씨만 응시했으며, 면접에는 시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등 5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응시 자격 요건인 보건의료 자격증이 없는 것이 확인돼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채용을 담당한 장학사는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 당연히 보건의료자격을 갖춘 줄 알았는데, 교원교사 자격증만 있었다”면서 “최종 검토과정

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탈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안팎에서는 “B씨를 사전에 내정하고 형식적인 채용 전형을 거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통상 채용공고 시 7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치지만, 이번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는 휴일 직전인 3월 12일(금요일)에 공고를 낸 뒤 4일 만인 15일(월요일)부터 응시원서를 접수받는 등 채용절차에 의문이 많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에 보건의료교사를 62명 채용했는데, 1명의 결원이 생겼으며 학교에서 빠른 채용을 요구해 공고기간을 짧게 했다”며 “B씨가 간부 A씨의 자녀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구청장 소환조사 ‘관련선거’ 의혹 수사

광주 서구청의 ‘관련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5일 전주인 서구청장을 전격 소환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이날 전 구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 구청장이 당원모집과 선거전략 수립 등에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 청장의 경선준비 사무실과 서구 정보홍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총무국장실과 총무과 등의 선거관련 서류를 추가로 압수한 바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시교육청 ‘금품 로비’ 의혹 수사 확대

중견 건설업체 압수수색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건설업체의 ‘금품 로비’ 의혹(본보 4월 9일자 6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학교 신축공사 수주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이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견 건설업체인 N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시 동구 N건설업체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공사수주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광주 M고교 신축공사를 수

주한 N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A건설업체가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를 떠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직원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N업체 임원이 A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A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시교육청 직원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과 함께 관련 장부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성에 나누던 상대 지갑 슬쩍

동성애를 나누던 남성이 상대방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지만 휴대폰 번호를 남겨 달미.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15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S출입화장실에서 A(33·광주시 동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A씨의 양복에서 지갑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B(21·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동성에 사이트 메시지를 통해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고 성관계 후 A씨가 양복 상의를 벗어놓은 사이 현금 2만 5천원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간 것.

○B씨는 경찰에서 “손을 씻고 있는 A씨의 양복을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등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9 공무원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과 연계하면 합격은 쉽고 빨라집니다!

- 2009년 평균, 전일 4시간(2시간 수업) 100% 합격률
- 2009년 평균, 20시간(10시간 수업) 90% 합격률
- 2009년 평균, 전일 8시간(4시간 수업) 80% 합격률

개강 매월 1회 |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 **4월 16일** | **국어: 송태웅 선생님**

경찰직 |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

의사/약사가 되는 길

MDP Pass | **의사/약사**

PEET/MEET/DEET

MDP Pass | **의사/약사**

합격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 kgsai.co.kr

MDP Pass

의사/약사

문의: 02-463 | mdp-pass.co.kr